

Call Me 1348

황성진

과거를 바꾸려 떠났다가
미래를 구하고 돌아왔다





지은이 : 황 성 진

저자 황성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정적인 노력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가입니다. (주)비즈큐마스터 이사회 의장, 쏘셜공작소(주) 대표 공작원, ESG경영개발원 책임교수 등 다수의 직책을 겸임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소셜 캠페인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캠페인인 '산타독 캠페인'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ESG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전에 쉐어앤케어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기부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자는 소셜마케팅, 코즈마케팅 등 공익마케팅 전문가로서 마케팅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평소 자기계발에 열심이며,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삶을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보낸 저자는 성공뿐만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열리며 이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도로 올리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ESG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reativemoney4@gmail.com

BizCueMaster.com

2040년 서울, 새벽 3시.

김지원 박사(32세)는 15층 연구실의 창가에 서서, 네온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밤하늘을 수놓았고, 자율주행 차량들이 조용히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스며들지 않았다.

연구실 안은 고요했다. 첨단 장비들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만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10년간의 고독과 집념,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지원의 갈색 눈동자에는 피로와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희끗한 새치는 그녀가 겪어온 스트레스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실험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릴 적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부모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빠, 엄마...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10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030년 9월 15일, 흐린 가을날이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대규모 오류로 인한 연

쇄 충돌 사고. 뉴스에서는 '21세기 최악의 교통사고'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사고로 지원의 부모님은 영원히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경찰의 전화를 받던 순간을 지원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음성으로 전해진 비극적 소식.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때 그녀는 맹세했다. 어떻게든 부모님을 다시 만나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다.

지원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 후,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은 그녀는 실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실험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벽면을 꽉 채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는 복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이 춤추듯 떠다녔다. 형광색 선들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양자 컴퓨터가 끊임없이 계산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 늘어선 서버랙에서는 파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 강화유리로 된 케이스 안에는 그녀가 개발한 시간여행 장치가 놓여 있었다. 손목시계처럼 생긴 이 작은 장치는 10년간의 연구와 노력의 결정체였다. 은빛으로 빛나는 표면에는 미세한 회로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중앙의 디스플레이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고 장치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작은 장치가 정말로 시간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한 마디에 10년간의 연구,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컴퓨터 화면이 순식간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로 가득 찼다. 지원은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 중앙에 커다란 숫자가 나타났다.

성공 확률 99.9%.

지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아직 실제 테스트가 남아있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테스트뿐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흥분이 묻어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장치를 손목에 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피부를 자극했다. 목표는 단 5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작은 성공이 큰 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어 그 생각들을 떨쳐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장치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3..."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1..."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장치의 작동 버튼을 눌렀다. 순간 눈부신 빛이 번쩍었다.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게... 성공인가...?"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지원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빠, 엄마... 저 곧 갈게요.'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지원을 반긴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그녀는 울창한 숲속에 누워있었다. 머리 위로 높이 솟은 참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발밑에는 부드러운 이끼와 마른 낙엽이 깔려있었다. 새들의 지저귀음과 벌레들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육신거렸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실험실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 대신 숲의 축축한 흙냄새와 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런 깨끗한 공기는 2040년의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손목에 찬 장치를 확인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깜박거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런... 고장 났나?" 그녀의 목소리에 공포감이 묻어났다. 이 낯선 곳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니.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

이 귓가에서 쿵광거렸다.

그때, 은색 갑옷을 입은 기사가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짙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날카로운 회색 눈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허리에 찬 검이 햇빛에 반짝였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이건 분명 중세 시대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5분을 돌아가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온 것일까?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약간의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때 기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나오너라!"

지원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숨어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나무 뒤에서 나왔다.

"저...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의 현대식 옷차림과 외모는 분명 그에게 낯선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깃들여 있었다. 지원은 기사의 날카로운 시선에 몸을 움츠렸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지?" 기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다. 시간 여행자라고 말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녀는 중간을 선택했다. "저는... 먼 곳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기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지원의 옷차림에 멈췄다. "그렇게 이상한 옷차림을 한 여행자는 처음 보는군.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지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다음 말에 따라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순간, 기사가 입을 열었다.

"성으로 가자. 영주께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이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기사를 따라갔다. 말 위에 앉은 기사
의 뒤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성으로 가는 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초가집들은 낡고 허술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새어 나
오는 따뜻한 불빛과 연기는 이곳에 사람들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지원을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
들의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은 이 시대의 고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성은 웅장했다. 높이 솟은 석조 성벽과 뾰족한 첨탑은 마
치 동화 속 그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위압적인 모습은 이
시대의 권력 구조를 상징하는 듯했다.

걸어가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
면 단순한 꿈? 아님 환각?' 그녀는 자신의 팔을 꼬집어보았다. 아팠다.
이건 분명 현실이었다.

"저기..." 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사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서기
1348년이다. 어쩌다 연도를 모르게 된 거지?"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1348년... 흑사

병이 유럽을 강타한 해잖아.' 그녀의 머릿속에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스쳐 지나갔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끔찍한 전염병의 시대. 그리고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호기심도 피어올랐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윤리적 고민으로 바뀌었다. '내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바뀌도 되는 걸까?'

성에 도착하자, 지원은 영주 앞으로 인도되었다. 넓은 홀은 햇불로 밝혀져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영주는 푸른 눈에 은발을 한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옷차림과 주변 장식품들은 그가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원을 향했다.

"오, 이런 특이한 옷차림의 여인이라니," 영주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이 느껴졌다. "네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진실을 말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거짓말을 하고 의심을 받는 것. 어느 쪽이든 위험해 보였다.

결국 그녀는 진실과 거짓의 중간을 선택했다.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고, 제가 가진 지식으로 이곳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영주의 눈이 커졌다.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먼 나라라... 그곳의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넌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군."

지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하는 일이 이곳의 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현명한 말이구나. 좋다. 넌 우리와 함께 지내며 네 지식을 나눠주게.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거다. 모든 이들이 너를 환영하지는 않을 테니."

그의 말에 지원은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당장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영주님."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지원의 중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성의 한 방을 배정받

있고, 매일 영주와 그의 측근들에게 미래의 지식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다. 농업 기술, 기본적인 위생 개념, 간단한 의학 지식 등을 조심스럽게 전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내가 과거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2040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밤마다 그녀는 손목의 시간여행 장치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아직 멀어 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낯선 시대에서 그녀는 앞으로 어떤 모험을 겪게 될지, 그리고 과연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였다.

몇 주가 지나자 지원은 이 시대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은 성 안에서 가장 높은 탑 중 하나에 위치해 있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편안했다. 짚으로 만든 매트리스, 거친 린넨 시트,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십자가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학 지식을 이용해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윤작 시스템과 간단한 관개 기술을 도입한 결과, 성 주변 농장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그녀는 기본적인 위생 관념을 전파했다. 손 씻기의 중요성, 물 끓여 마시기 등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들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영주는 지원의 조언에 만족해했고, 그녀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성의 사제였던 토마스 신부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저 여인의 지식이 악마에게서 온 것은 아닐까요?" 토마스 신부가 영주에게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지원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워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원은 성 뒤편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의 시간여행 장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이 장치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절망의 원인이었다.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원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성의 의사인 윌리엄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의 나이와 비슷해 보였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아, 윌리엄. 네... 조금요."

윌리엄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지원을 향한 관심과 걱정이 깃들여 있었다. "무엇을 그리 고민하시나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뭔가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한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두려워요."

윌리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 아닐까요?"

지원은 그의 말을 곱씹어보았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울림이었다.

"무슨 일이죠?" 지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윌리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흑사병이 우리 마을에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역사 속에서 읽었던 끔찍한 재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거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썩은 고기 냄새 같은 역한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원은 이 냄새가 흑사병의 증상 중 하나인 괴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성 안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주는 성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이미 성 안으로 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자신의 지식으로 항생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페니실린. 그녀는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약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내가 역사를 바꾸는 건 아닐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인류애와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야.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원은 윌리엄을 찾아갔다. 그의 방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윌리엄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윌리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윌리엄은 잠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희망이 교차했다. "어떤 도움인가요?"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제가...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에요."

윌리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지원의 눈에는 간절함이 깃들여 있었다.

윌리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항생제 제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원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역사가 바뀌더라도, 지금 눈앞의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앞에는 미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4세기의 제한된 환경에서 현대의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위험과 도전들. 하지만 지원은 결심했다. 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항생제 제조는 결코 쉽지 않았다. 14세기의 제한된 환경에서 현대의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지원은 기억을 더듬어 페니실린 곰팡이를 찾아 배양하기 시작했다.

성의 지하실을 실험실로 개조한 그들의 작업 공간은 음산하고 축축했다. 햇불의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지원과 윌리엄은 밤낮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현대의 설비 없이 원시적인 도구로 작업해야 했기에 모든 과정이 느리고 어려웠다.

"이게 정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윌리엄이 의문스러운 눈으로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빵 조각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이 곰팡이가 우리를 구할 열쇠예요."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지원은 중세 의학의 지혜와 한계를 동시에 배웠다. 허브의 효능, 음식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힘까지. 과학만이 답이 아님을 그녀는 깨달았다.

한편, 성 안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매일 밤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실은 수레가 성문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토마스 신부는 이 모든 것이 신의 징벌이라며 회개를 외쳤고, 영주는

점점 더 초조해져 갔다.

"대체 언제쯤 그 약이 완성되는 거요?" 영주가 지원에게 다그쳤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침내, 한 달 여의 노력 끝에 첫 번째 항생제 샘플이 완성되었다. 지원의 손에 들린 작은 병에는 옅은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윌리엄이 물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것을 환자에게 투여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순간, 지원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효과가 있기를."

시간이 흘렀다.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피부의 괴저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기적의 약"이라는 소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지원과 윌리엄은 밤낮없이 일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새로운 치료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토마스 신부는 이를 "악마의 물약"이라 부르며 반대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요!" 그가 외쳤다.

하지만 영주는 지원의 편을 들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신의 선물일 수도 있소."

점차 흑사병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죽음의 행렬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미래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원의 시간여행 장치가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한 것이다. 귀환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이제 겨우 이 시대에 적응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는데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기 전날 밤, 영주는 지원을 불렀다.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소," 영주가 말했다. "당신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가치였소. 과학과 믿음, 지식과 지혜의 조화. 우리는 이를 잊지 않을 것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래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조용히 성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처음 이 시대에 도착했던 숲으로 향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을 돌아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장치를 작동시켰다.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지원은 다시 2040년의 실험실로 돌아왔다.

2040년 서울, 실험실.

지원은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수식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미래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시계는 그녀가 떠난 지 단 5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마치 평생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 모든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환각?'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천 조각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중세 시대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 윌리엄이 그녀에게 준 손수건이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컴퓨터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1348년 흑사병'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역사가 바뀌어 있었다. 흑사병의 피해가 원래 역사보다 훨씬 적었고, 특히 그녀가 머물렀던 지역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역사였다. 의학의 발전이 훨씬 빨라져 있었고,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철학 사조가 생겨났다는 기록도 있었다.

지원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내가 정말 역사를 바꿨구나..."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다. 지원의 동료 연구원인 민수가 들어왔다.

"지원아, 무슨 일 있어? 왜 울고 있어?"

지원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그냥... 감격스러워서."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감격? 뭐가?"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하는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 우리의 작은 발견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점심 먹으러 갈 때 새로 생긴 중세 테마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어때?"

14세기 유럽 스타일이라."

지원은 깜짝 놀랐다. "중세 테마 레스토랑이라고?"

"응, 요즘 중세 시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거든. 특히 14세기 중반, 무슨 '기적의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이라."

지원의 가슴이 쿵쥔거렸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래? 재미있겠다. 가보자."

민수가 나간 후, 지원은 다시 한번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윌리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들이 준 가르침을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2040년의 서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이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현대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이제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음을 깨달았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모험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 여정. 그녀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을 넘나들며 깨달았어," 지원은 중얼거렸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결국 사랑이야."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찾는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경험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이.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끝)